

2016. 7. 22.(금)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경인방송 TVFM

2016년 07월 21일 (목)

종합

'DMZ 프렌즈 3기' 23일 임진강변서 현장체험



사진 설명=DMZ 프렌즈가 체험활동을 벌이게 될 생태탐방로.(출처:연합뉴스) [경인방송=한혜란 기자]

경기도는 오는 23일 'DMZ 프렌즈 3기' 단원 30여 명이 임진강 생태탐방로에서 현장체험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DMZ 프렌즈는 DMZ 일원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해 DMZ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리는 홍보단입니다.

참가 대원들은 45년 만인 지난 1월 주민에게 개방한 통일대교~울곡습지공원 9.1km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체험활동을 통해 45년 만에 개방된 생태탐방로를 주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4 X 16,8 cm

道 'DMZ 프렌즈 3기' 임진강 생태탐방로 체험

걷기체험·환경정화 봉사 진행

경기도는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태·안보·문화·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DMZ 프렌즈 3기' 단원 30여 명이 오는 23일 임진강 생태탐방로에서 현장체험을 한다. DMZ 프렌즈는 도내 각종 DMZ일원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SNS를 통해 DMZ일원의 생태·안보·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SNS 홍보단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현장체험은 1971년 이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다가 45년 만에 올해 1월부터 국민에게

환원된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진행된다. 이곳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통일대교를 거쳐 울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9.1km의 트래킹 코스로, 일부 구간이 민통선 내에 속해 있어 임진강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단원들은 이날 생태탐방로 걷기 체험,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DMZ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SNS를 활용해 DMZ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어서 SNS 홍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 회의를 통해 DMZ 홍보 콘텐츠 제작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조윤성기자**

11.3 X 9.0 cm

■ SNS 홍보단,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현장체험

45년만에 열린 'DMZ 길' 어떤 모습일까

내일 걷기·환경정화 봉사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회의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3일 'DMZ 프렌즈' 3기 단원 30여명과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DMZ 일원 현장체험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DMZ 프렌즈는 도내 각종 DMZ 일원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 SNS를 통해 DMZ일원의 생태·안보·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SNS 홍보단이다.

이번 현장체험은 지난 1971년 이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다가 45년만인 올해 1월부터 국민에게 환원된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진행된다.

단원들은 이날 생태탐방로 걷기 체험,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참여를 바탕으로 SNS를 활용해 DMZ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어 SNS 홍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 회의를 통해 DMZ 홍보 콘텐츠 제작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체험활동은 45년 만에 개방된 생태탐방로를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홍보단원들의 적극적 홍보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17.9 X 9.6 cm